

클래식&뮤지컬 부부 “우린 서로의 선생님”



양형모의 공소남닷컴
ranbi@donga.com

부부로 만난 클래식과 뮤지컬 성악가 안갑성 뮤지컬배우 김민주

‘어쨌신’ ‘위대한 컷츠비’ 김민주씨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안갑성씨
“서로에게 절실한 연기·노래 선생님”

해가 쨍쨍하다. 분수 쇼 음악이 귀에 왕왕 울렸다. 손그늘을 만들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안갑성·김민주 부부가 오늘 인터뷰의 게스트이다. 남편 안갑성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베를린국립음대를 나와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한 성악가(바리톤)이고, 아내 김민주는 ‘싱글즈’,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헤어스프레이’, ‘맨 오브 라만차’, ‘모차르트 오페라 락’, ‘어쨌신’, ‘위대한 컷츠비’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다. 같은 듯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안·김 부부와와 인터뷰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영상촬영과 함께 진행됐다. 오페라와 뮤지컬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다. 세 사람 모두 야외 테이블에 앉아, 푸드트럭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을 홀짝였다.



‘클래식별에서 온 남자’와 ‘뮤지컬별에서 온 여자’. 성악가 안갑성(오른쪽)과 뮤지컬배우 김민주가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했다. 두 사람은 인생이란 긴 여행의 동반자이자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연기, 노래선생님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2015년에 화축을 밝힌 안·김부부가 ‘썸’을 타게 된 계기는 뮤지컬이었다. 때는 결혼 2년 전인 2013년. 오페라 가수 안갑성에게 처음으로 뮤지컬 출연기회가 주어졌고, 제목은 ‘쌍화별곡’이었다. 안갑성은 주인공 원효를 맡았는데 상대역인 요석공주가 는 크고 늘씬한 미녀배우 김민주였던 것. 당시 ‘쌍화별곡’은 중국 4개 도시를 돌며 공연을 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만남도 깊어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안갑성은 김민주에게 프리포즈를 했다. 틀림없이 여성이라면 훌쩍 반할 바리톤의 굽직한 저음으로 무게를 잡았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DNA가 탐이 나오.”

김민주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를 나왔다. 공연담당 기자를 10년이나 했지만 아직까지 한테 대 출신 배우를 본 기억이 없다. 김민주도 “뮤지컬 하면서 한번도 동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김민주의 작은 아버지가 중견 뮤지컬배우 김덕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친척 덕 봤다”라는 말이 듣기 싫어 최근까지 공공 숨기고 산 탓이다.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뮤지컬 공연을 보러 다녔던 김민주는 고등학교 시절 ‘폐임’을 보고 문화적 충격에 빠졌단다. 대학을 들어간 후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춤을 배우러 다녔고, 3학년이 되자 휴학을 하고 ‘그리스’ 오디션을 보러 갔다. 그 이후는, 보다시피 이렇게 배우로 살고 있다. “예제능을 겸비한 최고의 신부가 아니냐”고 하니 안갑성이 웃는다. 어깨가 쭈욱 펴진다.

뮤지컬 배우(최근엔 금강1894라는 작품에 출연), 공연기획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안갑성은 모처럼 ‘본업’으로 돌아간다.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리는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에서 남자주인공 ‘다닐로’를 맡았다. ‘뮤지컬 보다 더 재밌는 오페라’라는 별명이 붙은 작품이다. 빈 스타일 오페라타의 결정판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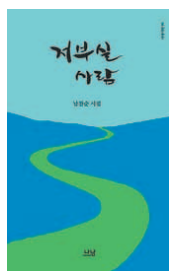
두 사람은 인생이란 긴 여행의 동반자이자 서로에게 절실한 연기와 노래선생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다른 듯 닮은 ‘클래식별에서 온 남자’와 ‘뮤지컬별에서 온 여자’가 사는 법. 예쁘고 신기하다. 조금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눈 앞에 펼쳐지는 나의 꿈같은 ‘저부실’

시간

●저부실 사람 (남찬순 저 | 나남출판)

저부실은 지명이다.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에 있다. 저자가 꿈같은 유년기를 보낸 고향이기도 하다. 서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워싱턴 특파원까지 지냈지만 저자의 마음은 항상 저부실에 있었다. 이 232쪽짜리 시집에는 꼭마다 저자가 마



음속에 잔잔히 온 고향에 대한 향수가 흠뻑새처럼 배어 있다. 저자의 기억이 불러온 풍경들로 채워진 저부실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다. 그곳은 저자의 심적 안식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저부실의 잔잔한 풍경은 사회 현실의 순간과 마주치기도 한다. ‘향나무 들썩에 고이는 눈물(그날 중)’, ‘목련꽃이 바람길 위에 널브러져 있다/멍들고 일그려진 꽃잎들(꽃들은 어

디로 중)’과 같은 전원적인 이미지로 저자는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다. 사회의 풍경은 고스란히 고향의 풍경과 겹친다.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을 산책하는 여유에서는 삶의 황혼을 바라보는 저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잘 가게’, ‘별이 떨어집니다’와 같은 시를 통해 곁을 떠난 사람들을 추억하고, 다가올 이별을 준비한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삶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저자는 그의 ‘저부실’과 닮았다. 저자 남찬순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석사, 경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기자,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심의연구실장을 지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에듀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그 이후는?

공인중개사 합격 이후 모든 솔루션이 있는 곳 ‘동문회’

운전면허에만 장통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장롱 속에 썩고 있으면 자격증을 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년 없음’이라는 장점을 보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마련인데 개업과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노후 대비’라는 큰 기회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개업 등의 활용을 위한 재빠른 노력은 필수적이다. 공인중개사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맥이 필수라 말하는 이

들도 적지 않다. 물론 교환 등의 네트워크 구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합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합격 이후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자격증 취득 이후 막막함을 호소하는 수험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국내 업계 최초로 동문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이후 수험생의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사후 관리’란 말 그대로 합격 이후 취업, 개업 등의 활용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의미한다.



‘영업중·부재중 부착판, 명함꽃이, 에듀윌 동문회 인증 업소 간판’ 발송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동문들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동문회원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3				7				2
6		5		2		9		1
		2		9		3		
	6		7		4		9	
	5						1	
	2		1		5		3	
		6		4		1		
7		1		5		4		3
5				1				9

5				8	2				4
			1			9	7		
		2			7			8	
		3		2		8			1
8		5					3		2
6				7		1		5	
		5			8			1	
			7	9			8		
1					6	5			7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6	2	1	8	1	9	7	8	9
8	9	7	2	9	8	1	6	1
8	9	1	2	7	6	9	8	2
7	8	9	1	2	6	8		
2	1	9	6	8	2	6	9	7
9	6	2	7	8	1	9	1	8
9	7	8	1	6	9	2	1	8
1	2	6	8	2	6	9	7	9
2	8	9	9	1	7	6	1	8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2(금)·23(토)·24(일)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청색	쥐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정성을 다하면 주변인의 도움으로 취업이나 거래, 자금융통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오늘은 주변의 변화로 인한 이득이 있는 날이다. 상속 받는 일, 복권당첨일이 될 수 있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좋은 기회와 함께 일이 성사되는 운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원망 듣는다. 길방:서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적색	소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라. 길방:남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따를 수도 있다. 노력과 정성이 따라야 한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투자 등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일을 처리하면 결과가 좋다. 길방:남
행운색 금: 검정 토: 적색 일: 검정	호랑이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길과 흉의 운기가 교차하는 시기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을 구하라. 길방:북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하다. 운세: 평소 애대하던 사람도 오늘은 차분해진다. 선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인맥을 연마하라. 길방:남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여성의 도움이 있는 날이다. 가정의 안정과 수입의 증대가 있다.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라. 길방:북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적색	토끼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마음이 심란하다. 승고한 마음상태를 유지하라. 길방:북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공연히 마음이 분주하다. 남을 도와주기도 원망 듣는다. 현 상태를 유지하라. 길방:남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흰색	용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자포자기에 빠지다 보면 협력자에게 배반당할 수도 있다. 오늘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길방:서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가 생기며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회를 얻는다. 매사 신속히 처리하라. 길방:서
행운색 금: 청색 토: 청색 일: 청색	뱀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특세하게 된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어 내 일은 보상받겠다. 길방:동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뱀가 시작을 하려는데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오늘은 뱀따라 돼지띠와 함께하라. 길방:동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잘나가던 사람은 위기로, 못나가던 사람은 찬스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 길방:동
행운색 금: 청색 토: 청색 일: 청색	말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라.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길방:동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무의미는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탄을 쌓는다. 예술과 문학 등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길방:동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투기나 유흥에 빠지기 쉽다. 적당한 음주나 유흥은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곤경에 처한다. 길방:동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적색	양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기발한 표적으로 상태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화책하려한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나의 적이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외견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신중 하라.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가 생기고, 사업가나 예술인, 학자 등은 뜻밖의 명성을 얻는 기운이다. 길방:남
행운색 금: 노랑 토: 노랑 일: 검정	원숭이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용띠가 귀인이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느긋하게 행동하라. 구직자는 직장을 얻고 사업자는 주변의 도움으로 거래실적이 좋아진다. 길방:북
행운색 금: 검정 토: 노랑 일: 노랑	닭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별로 전철이 없는 시기이다. 여성의 경우 남편이 시시해 보이고 소통하지 않아 보인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운기가 바뀌어지는 기운이다.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돼지띠가 귀인이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매사가 순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지원자를 얻게 된다. 주변인의 조언을 참조하라. 길방:중앙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적색	개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수입이 늘어 기쁜 날이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창고에 곡물이 신평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에 착수하라. 길방:서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이일 저일 순대지 말고 자신의 일에 충실 하라. 지나친 욕심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길방:남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흰색	돼지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마찰로 인해 힘들게 되며 그로인해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순풍에 돛을 단 배의 기운으로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금전이나 가정 문제는 순조로우나 새로운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뱀띠와 의논하라. 길방:서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4, 9)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